

창조질서 회복, 예수 제자의 길!

4월 5일까지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이어져
성인과 대형 '절제와 성실', 차세대 '디지털 미디어'

2026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이 한창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며 예수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은 오는 4월 5일(부활주일)까지 이어진다.

성인공동체와 대학청년부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5주 차(3월16~21일) 주제는 '절제와 성실: 운이 아닌 은혜로 사는 삶'이다. 최근 과도한 주식 및 코인 투자 등에 몰입하며 요행을 바라는 문화 속에서 영적 무기력증을 경계하고,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의미다. 월요일(16일) 무의미한 TV 및 유튜브 시청이나 잠담 시간 줄여 기도 시간 확보하기, 화요일(17일) 주식 및 코인 차트 확인 등 과도한 몰입에서 벗어나기, 수요일(18일) 일터에서 남을 이기기보다 서로 돕는 협력자 되기, 목요일(19일) 감각적인 즐거움보다 영적인 평안에 집중하기, 금요일(20일) 가상 세계나 환상보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토요일(21일) 디지털 기기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창조주 목상하기 등을 실천한다.

차세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회복하기: 디지털 미디어'를 주제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활동을 실천한다. 월요일(16일) 영상 보기 전 성경읽기, 화요일(17일) 게임과 영상 보지 않고, 기분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수요일(18일) 식사시간에 영상 보지 않고 가족과 대화하기, 목요일(19일) 잠들기 30분 전 모든 미디어 끄기, 금요일(20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기억하고 감사하기, 토요일(21일) 조용히 1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짧게 기도하기 등을 실천한다.

오는 고난주간(3월 30일~4월 4일)에는 '겸손과 순종: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를 주제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활동을 실천한다. 이 기간에는 굶은 일을 먼저 하고 이웃을 섬기며, 성금요일에는 미디어 금식과 한 끼 금식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을 실천한다. 부활주일(4월 5일) 든 8주 차에는 '나를 따르라: 부활의 증인으로'가 주제다. 지난 40일 동안 가장 도전이 되었던 실천 사항 한 가지를 정하고, 일상에서 지속하며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 개강

6월 12일까지 매주 금 오전 9시 30분 사랑홀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가 개강했다. 오는 6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전화(010-5603-5500)로 하면 된다.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말씀과 신앙 서적을 읽고 나누며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모임이다. 이번 학기 신앙 서적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강신의 장로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듣고 읽으며 배우는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 주저하지 말고 함께하길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관련기사 10면>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양재와 부천온누리교회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양재는 3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드림홀, 부천은 3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당일 접수하면 된다. 회비는 양재 5만 원, 부천 3만 원.

시니어아카데미는 성경 속 시니어의 믿음과 삶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양재(010-7347-3473)

부천(010-5334-8413)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4주차

오전 5시 30분 각 캠퍼스 본당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이하 40일 새벽기도회)가 벌써 4주 차를 맞이한다. 올해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주제로 산상수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4주차 주제는 '기도의 길'이다. 3월 16일(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마 6:10),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 6:10), 17일(화) '오늘 꼭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마 6:11),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주소서' (마 6:12), 18일(수) '악에서 구하소서' (마 6:13),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마 6:13), 19일(목) '아버지께만 보이는 금식' (마 6:16~18),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 6:19~21), 20일(금) '분별의 눈을 가지라' (마 6:22~23), '하나님과 재물' (마 6:24)를 주제로 설교가 이어진다. 매주 금요일에는 대학청년부와 차세대가 예배를 주관한다.

40일 새벽기도회는 오는 4월 3일(금)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에서 새벽기도회 실황을 중계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는 성도들의 40일 새벽기도회 참여를 독려하는 특별영상 '2026 40일 새벽예배 브이로그'를 업로드하고 있다.

이은옥 권사(강서공동체)는 "내 의지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차세대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려 한다"고 고백했다.

<빛과소금> 2026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두란노서원

에서 발간하는

월간 <빛과소

금>이 '2026년

우수콘텐츠잡

지'로 선정됐

다. 우수콘텐츠

잡지는 문화체

육관광부의 지

원을 받아 (사)

한국잡지협회

가 국내 정기

간행물 중에서 콘텐츠 우수성을 기준으로 매

년 선정 및 발표한다.

<빛과소금>은 1985년 창간했다. 42년째 세상에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는 문서사역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1993년 공보처 우수잡지 선정을 시작으로 2000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2026년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됐다.

/ 박지혜 기자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작은 야고보: 이름 없는 헌신

마가복음 3:13~19, 15:40~41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제자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개인주의 신앙,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예수님이 공동체로 제자들을 모으고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관계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의 역사, 그리고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는 제자의 삶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깨닫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사회적 배경과 성격, 기질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가진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무엇을 이루도록 하신 것일까요? 서로의 차이와 문제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지만, 묵묵히 뒤에서 조용히 따랐던 이들도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은 신약 성경의 여러 사건 주인공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일이 있어서 잘 기억되고 있지만, 그 밖의 제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세 사람

오늘 살펴볼 제자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작은 야고보라 불렸던 사람의 이름과 그의 부모와 형제에 대한 정보 외에는 다른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세 사람이 등장하기에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형제는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벳새다 출신 어부로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왕에 의해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12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였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오늘 살펴볼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알패오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입니다. 세리 출신 마태도 알패오의 아들입니다. 알패오라는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9장이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똑같

이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두 세 가지 이름을 가졌던 그 시대 상황을 놓고 볼 때 글로바와 알패오가 동일 인물이라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 밝혔고, <요한복음>에서는 남편의 이름을 통해 마리아의 정체를 드러냈다면, 글로바가 곧 알패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야고보의 어머니가 사별한 이후에 글로바와 재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처형 장면에 남아있던 사람이 다섯 명인데, 네 명의 여인 중에 세 명은 정체가 분명하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서로 다른 마리아를 말하고 있어서 이 둘은 같은 마리아일 것이고, 그렇다면 알패오의 또 다른 이름이 글로바일 거라고 충분히 추정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야고보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고, 아버지의 이름은 알패오 혹은 글로바라고 불렸고, 그의 형제 가운데서 마태가 있었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유대 사회의 '네 개 종파'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의 위치가 아홉 번째 사도입니다. 명단 뒷부분으로 온 것입니다. 마지막 그룹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알패오의 아들이고, 그다음 다대오, 그다음 시몬, 그다음 가롯 유다입니다. 이 네 사람을 뒷부분에 묶어서 기록한 것은 활동이 저조했거나 예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공통적인 특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를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시몬은 '열심당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대오도 '열심당원'이라는 증거가 고대 사본들에 나옵니다. 시몬은 다른 사본에서는 '열심당원 유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결정적인 계기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이상과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뒷부분에 기록된 제자들의 배경과 그들이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로마의 지배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해줄 메시아를 찾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도 그 실망감 때문에 결국 돈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가롯 유다, 시몬, 다대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라는 성경학자는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도 열심당원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

람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열심당원'은 유대 사회를 이루었던 네 개 종파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 사회를 형성하던 네 종파 첫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중심의 근본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성전 중심의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초월적인 것도 믿지 않고 그저 현실에 묶여 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에세네파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세상을 떠나서 광야로 돌아가 현실을 차단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네 번째가 열심당원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당시에 유대 사회를 주로 지배했던 권력층이라면, 그들이 보기 싫어서 광야로 뛰쳐나가 금욕 생활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이고, 그들과 정반대인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로마에 협조하고 앞잡이 역할을 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을 소명으로 생각했던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극단주의 행동대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 있기에 로마인들이나 로마 제국과는 싸워야 하고, 그들과 협조하는 세리 같은 사람들은 테러도 해야 한다며 암살조도 운영했습니다. 그 활동을 한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 가운데 여러 명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다대오, 시몬, 가롯 유다, 야고보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명단을 보면 초기에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등은 어부 출신이고, 중간에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 같은 제자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 시몬,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열심당원적인 시각과 활동을 했거나 그 입장에서 있었던 제자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면, 알패오의 아들 마태는 세리였고, 또 다른 아들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형제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치적인 시각이 전혀 다르면 형제간의 관계도 깨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마태와 야고보의 관계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

“복음 역사에서 작은 것으로 뿌려진 씨앗 같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열매, 큰 상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스스로 작은 자가 되는 제자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갈등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겸손하게 충성하고 헌신한 제자

〈마가복음〉15장에서는 그의 이름 앞에 ‘작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합니다. 그를 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을까요? ‘그가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일 것이다’, ‘뒤늦게 부르심을 받았을 것이다’ 등 여러 해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나 나이로 ‘작은’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해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로 여기고,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를 그와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로 불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책망하실 내용 아니겠습니까? ‘누가 큰 자냐?’를 두고 늘 다투던 그들인데, 한 야고보를 더 크게 여기면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를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가 12제자의 명칭을 사용했을 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썼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그러므로 ‘작은 야고보’라는 단어를 마가가 썼을 때는 예수님이 늘 사용하셨던 ‘작은’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사용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 마가가 ‘작은 야고보’라는 호칭을 썼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주로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용어 속에서 ‘작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작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크로스(Micros)’입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마이크로(micro)가 나온 것입니다. 영어에서 마이크로는 작은 것을 분명히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한 번도 ‘작은’이란 단어를 신체의 크기나 나이를 가지고 사용하신 적이 없고, 다른 의미로 여러 차례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마 10:42).

‘예수님의 제자 중 작은 사람들’이라고 했

을 때는 키가 작거나 신체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작다는 ‘덜 알려지거나 두드러지지 않거나 미약해 보이는 사람 일지라도’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사람이다”(눅 9:48).

여기서 사용되는 ‘작은’이라는 단어도 분명 신체적 크기나 나이를 가리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작은’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작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용례들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작은’이라는 단어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겸손하게 충성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신체의 특징이나 나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훈을 주실 때 사용하신 ‘작은’이라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석하면 작은 야고보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겸손하게 충성하고 헌신한 제자’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의 충성된 기록

작은 야고보는 성경 어디에도 그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했고 지도자로 쓰임 받았고,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했고, 바울은 많은 곳을 다니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삶이라고 해서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으나 조용히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참된 제자는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알려진 것이 곧 헌신의 크기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위치

에 있는 이들을 더 주목해 보십니다. 〈히브리서〉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중반까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11장의 하이라이트는 뒷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히 11:36~38).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의 충성된 기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으나 세상이 감당치 못했고, 세상을 가치 없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한국 선교의 역사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선교사님들보다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 선교 역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선교사 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선교사님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중국내지선교회를 30년 이상 이끌고 발전시킨 분이 있습니다. ‘딕슨 에드워드 호스트(D.E. Hoste)’입니다. 그분은 20대 초반 영국의 ‘DL 무디(D.L. Moody)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회심했고,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선교의 필요성에 감동해서 글을 읽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중국내지선교회가 지금의 ‘OMF(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입니다. 제가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안 것은 OMF 총재였던 싱가포르의 ‘패트릭 펑(Patrick Fung)’이라는 분이 쓴 작은 책자 덕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책자였습니다. 그분이 OMF 역사를 정리하면서 글을 쓰려는데 훨씬 짧게 사역했던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자료는 너무 많은데, 30년 이상 사역한 분에 대한 자료는 너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없을까?’ 그런데 그분은 의도적으로 자신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소책자만 쓸 수 있었습니다. 패트릭 펑이 딕슨 에드

워드 호스트(D.E. Hoste)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분을 기억하는 동료들에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잊히도록 살았습니다.”

D.E. 호스트 선교사님은 오늘날 OMF가 되기까지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지만,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숨겨진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게 또 있는데 캠브리지 7인 중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C.T. 스테드(C.T. Studd)’를 비롯해서 여러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캠브리지 대학 출신은 아닙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집회할 때 당시 엘리트였던 영국 캠브리지 출신의 일곱 명의 청년들이 중국 선교에 헌신했는데 이 사건이 1885년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명한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던 C.T. 스테드도 있었고, 조정 선수, 귀족, 군 장교 출신 등 영국에서 소위 큰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엘리트 청년들이 허드슨 테일러의 말씀을 듣고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헌신한 것입니다. 캠브리지 7인을 통해서 많은 영국의 젊은이도 헌신했습니다. C.T. 스테드는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했는데 현재 가치로 수십억 원 이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은 너무 큰 것이 아니다.”

C.T. 스테드도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큰 자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작은 자의 충성을 기억합니다. 12제자 명단에 있지만 기록이 없다고 아무런 헌신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로 헌신했을 뿐입니다. 작은 야고보라는 이름 속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 역사에서 작은 것으로 뿌려진 씨앗 같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열매, 큰 상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작은 자가 되는 제자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새로운 선교 시대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길!

‘온누리교회 선교 정책 및 선교사 인식 조사’ 분석



박태성 장로
(서초A공동체, 선교분과 미래전략위원회)

선교사역본부 김홍주 목사와 이대행 선교사의 요청으로 기획된 ‘온누리교회 선교 정책 및 선교사 인식 조사’는 지난해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실시되었다. 본 글에서는 그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했다. 조사는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전 세계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했다. ‘선교 정책에 대한 이해도’, ‘현장 사역과의 연관성’,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과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총 508명(2명은 10월에 응답해서 분석에서 제외)의 선교사가 조사에 참여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49%, 여성 51%로 거의 균등했다. 연령대는 56세 이상(46%)과 46~55세(40%)가 전체의 86.3%를 차지하면서 중견·시니어 선교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그림 1). 결혼 여부는 기혼 81%, 미혼 17%였다. 사역지 분포는 동남아시아(19.5%), 중동·북아프리카(19.3%), 동북아(17.5%), 남아시아(10%) 등의 순으로, 아시아 및 전략적 접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선교 사역 형태는 전방개척 선교(30.9%)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 선교(13.2%), 현지교회 협력 선교(10.6%), 제자 양육(1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그림 2). 이는 온누리교회 선교가 여전히 ‘개척과 훈련’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교 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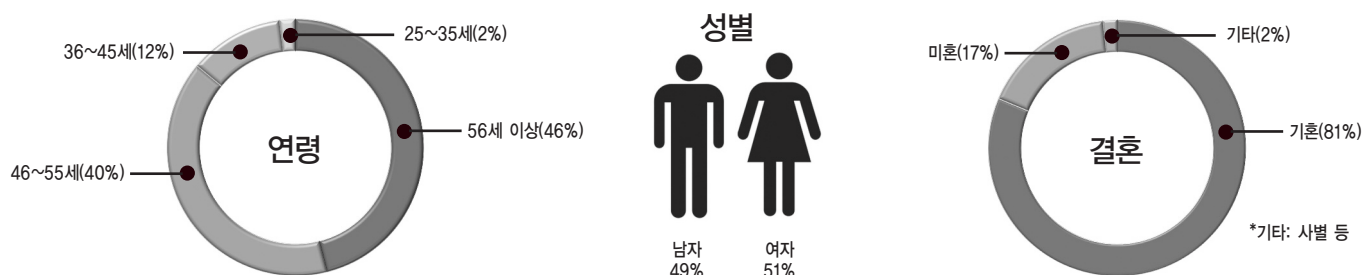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온누리교회의 선교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46.5%) 또는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12.0%)고 응답해 58.5% 이상이 선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정보를 처음 접한 경로로는 ‘파송 전 교육’이 62.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본부나 교역자의 설명’ (23.6%) 등이 그다음이었다. 이 결과는 온누리교회 선교 정책이 현장보다는 주로 파송 전 단계에서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의 핵심 키워드(복수 응답)로는 ‘Acts29’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이어 ‘융합선교와 촉매선교’가 뒤를 이었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이 두 개념이 가장 빈번히 등장했으며, 이는 선교사들이 온누리교회 선교 정책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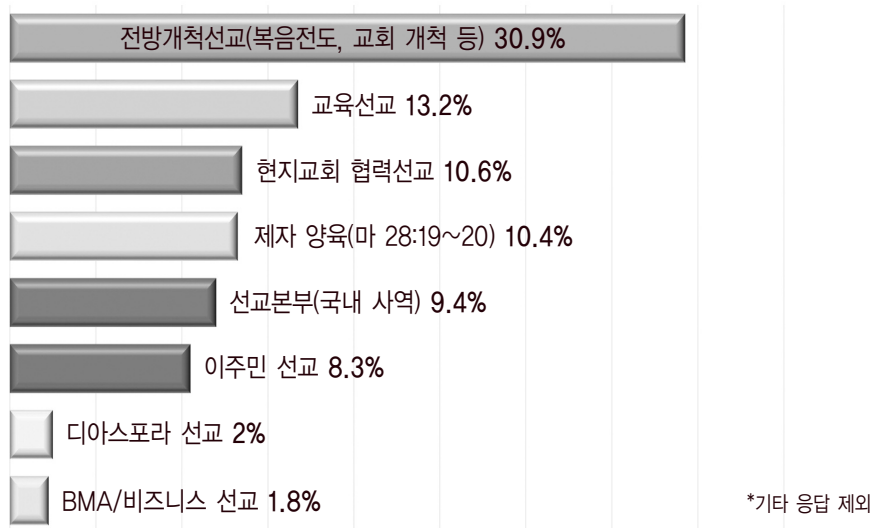
정책과 사역의 연관성 및 평가

선교사들은 자신의 사역 정체성과 온누리교회 선교 정책 간의 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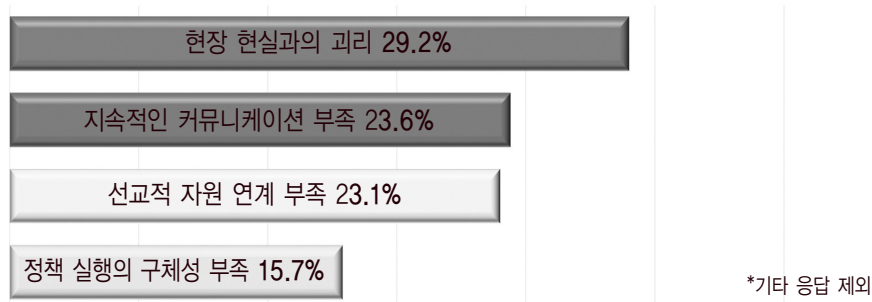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의 연령, 성별, 결혼 여부 (소수점 반올림 및 절사)



〈그림 2〉 온누리 선교사역 유형



〈그림 3〉 온누리 선교 정책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



려한다’ (56.9%) 또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19.9%)고 응답했다. 선교 정책이 실제 사역 방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 반영해 사역 방향을 조정했다’ (53.3%)가 가장 많았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36.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온누리교회 선교 정책이 단순한 지침을 넘어, 실제 현장의 전략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누리교회의 Acts29 비전이 사역에 반영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다’와 ‘반영하려고 노력한다’가 동일하게 46.9%로 나타나 대부분 선교사가 Acts29 비전을 사역과 연계시키고 있었다.

현장에서 가장 도움이 된 정책 요소로는 ‘융합선교’와 ‘제자 양육’이 공통적으로 언급되

었다. 특히 융합선교는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총체적이고 맞춤형 사역’으로 평가되어 선교사들이 현장 적합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정책의 보완점으로는 ‘현장 현실과의 괴리’ (29.2%)가 가장 높게 지적되었고, 이어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부족’ (23.6%), ‘선교 자원 연계 미흡’ (23.1%), ‘정책 실행의 구체성 부족’ (15.7%) 등이 뒤를 이었다(그림 3). 이는 정책의 의도와 현장 적용 간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향후 강화가 필요한 분야로는 ‘차세대 선교사 양성’이 1위를 차지했고, ‘현지인 리더십 강화’, ‘선교사 돌봄 및 회복’, ‘전략적 연합(파트너십) 확대’가 뒤를 이었다(그림 4). 온누리

교회 선교 정책의 핵심 키워드에 대한 응답에서는 ‘Acts29’가 압도적인 1위로 나왔으며, 다음으로 융합과 촉매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순으로 나타났다. 온누리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선교’가 1위, ‘Acts29’가 2위, 그 다음으로 ‘故 하용조 목사’, ‘예배’, ‘비전’, ‘성령’ 순이었다.

리더십 이양과 후임자 양성

후임자 양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기적 훈련 중’과 ‘준비 중’이 동일하게 25.8%, ‘필요성을 인식 중’이 26%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리더십 이양을 이미 준비 중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역 위임 준비 정도는 ‘전적으로 준비 중’ (21.2%), ‘일부 준비 중’ (46.1%)이었으며, ‘아직 준비되지 않음’ (23.5%)도 적지 않았다. 즉, 대부분 선교사가 이양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스템이나 인력의 한계로 완전한 전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임자 양성을 위한 지원 방향으로는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35.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유연한 정책 구조’ (25.8%)와 ‘멘토링 체계 구축’ (19.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제도적 훈련뿐 아니라 세대 간 경험 전수와 관계적 멘토링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로잔대회 인식과 정책 연계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로잔대회)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 (22.7%), ‘보통이다’ (46.3%), ‘잘 모른다’ (22%)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들어는 봤으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47.6%), ‘정보 접근 기회가 없었다’ (44.5%)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선교사들에게 로잔대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로잔대회 주제가 사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크다’ (10.4%)와 ‘다소 있다’ (24.5%)가 35% 수준이었으며, 절반가량은 ‘보통이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국제 선

교 담론과 현장 사역 사이의 연결이 여전히 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로잔대회 이후 온누리교회 선교 정책이 강화해야 할 방향으로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35.5%)과 ‘차세대 리더십 강화’ (31.8%)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어 ‘창의적 접근 지역(CA) 선교’ (17.6%)와 ‘디지털 선교 전략’ (14.3%)이 뒤를 이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권역별 포럼 운영’ (49.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디지털 플랫폼 구축’ (33.1%), ‘실천 평가체계 도입’ (17.3%)이 뒤를 이었다.

융합선교의 이해와 적용

융합선교에 대해 ‘일부 사례를 알고 있다’ (43.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직접 적용하고 있다’ (24.7%), ‘개념은 들었지만 명확하지 않다’ (28.6%), ‘처음 들어본다’ (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융합선교를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념은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현장 중심의 실행 모델과 교육·컨설팅 지원의 부족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현장에서 효과적인 융합선교 분야로는 ‘교육’이 가장 높았으며, ‘회복과 가정사역’, ‘일대일제자양육’, ‘의료사역’이 뒤를 이었다. 이는 융합선교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통합적 접근으로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전략임을 보여준다.

선교사 자녀와 세대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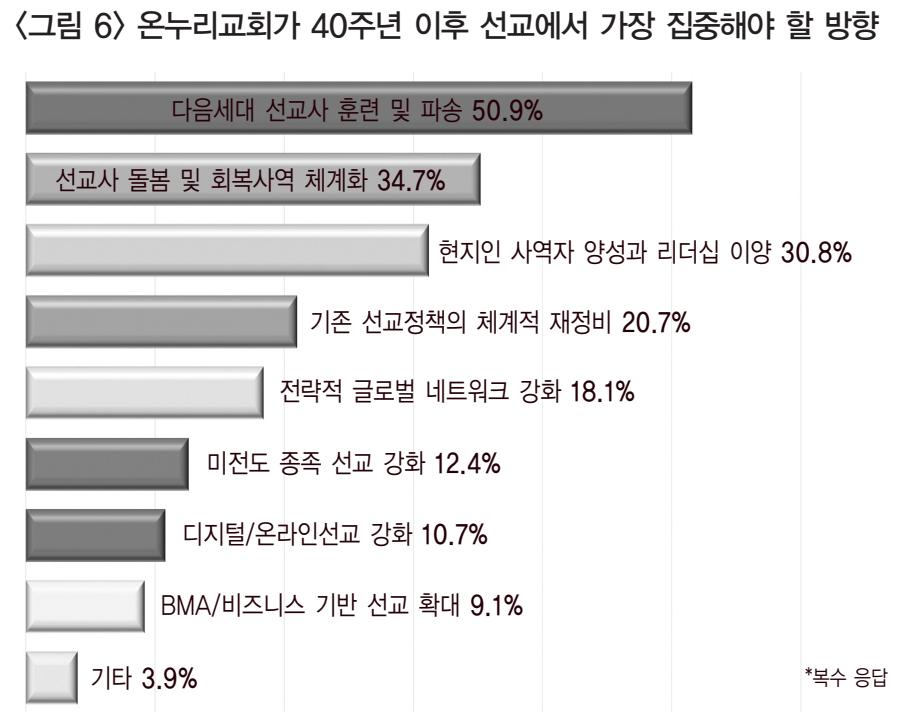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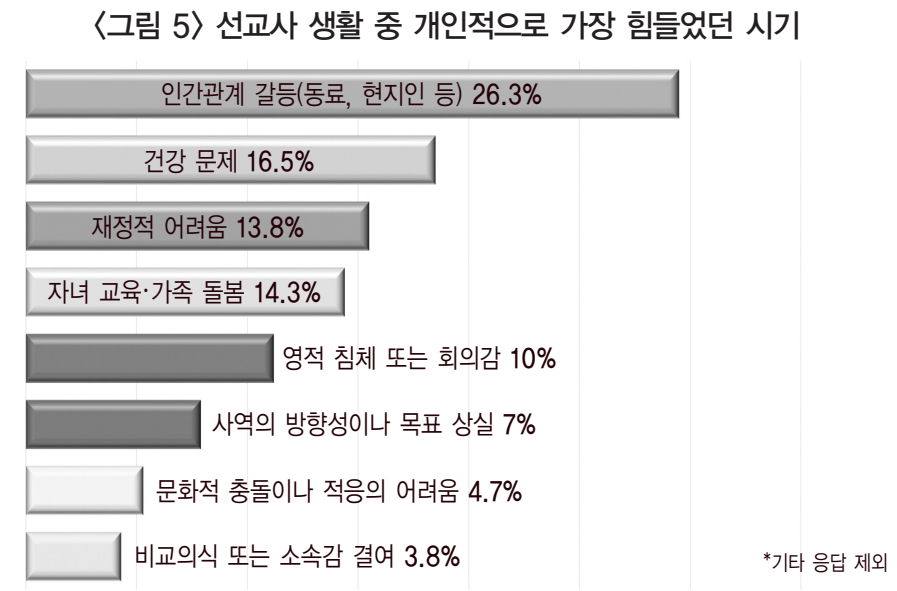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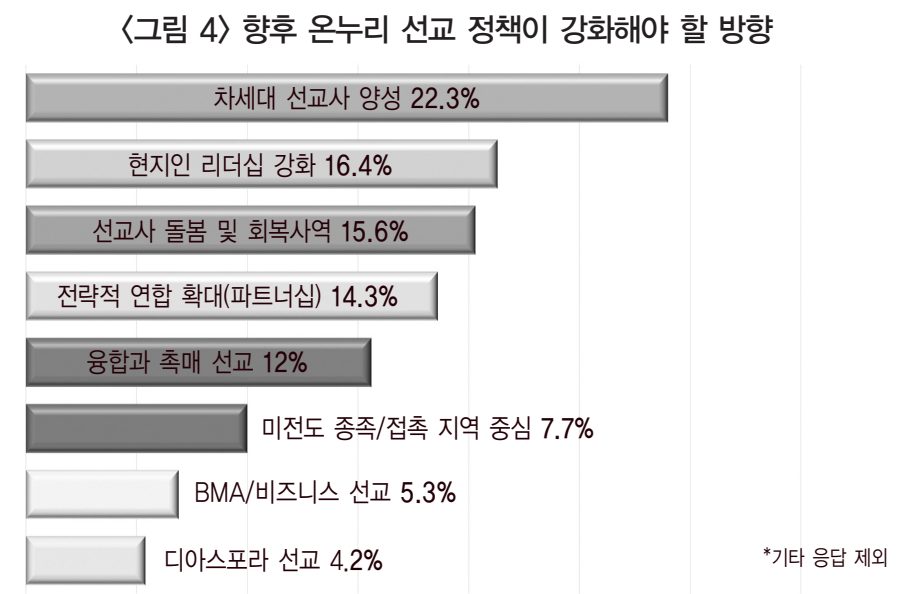
자녀에 대한 질문에서는 선교사의 삶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환경을 함께 물었다. 학령기 자녀의 교육 환경은 ‘현지 공·사립학교’ (20.2%)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국제학교’와 ‘홈스쿨링’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교육 인프라와 선교 환경에 따라 선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역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 긍정적’ (15.1%)과 ‘긍정적’ (45.3%)이 절반을 넘으며,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이는 부모의 헌신과 신앙적 삶이 자녀에게 신앙적 모범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길을 이어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원한다’ (9%), ‘어느 정도 원한다’ (25.3%)로 나타나 긍정적 영향에 비해 실제 진로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교사 가정 자녀들이 부모의 사역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동시에 자신들 삶의 환경과 현실적 어려움(이동, 교육, 언어, 정체성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온누리교회 선교 정책에는 선교사 자녀(MK)의 교육 지원과 정체성 형성을 돕는 ‘가정 기반 사역 돌봄 정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AI의 영향력과 활용 현황

AI 기술이 선교 사역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매우 크다’ (24.9%), ‘어느 정도 있다’ (52%)로 응답해 약 77%의 선교사가 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I 활용 수준은 ‘개인 참고 용으로 사용한다’ (57.1%)가 가장 많았고, ‘정기적·적극적 활용 중’ (19.8%), ‘전혀 사용 경험



없다’ (12.7%) 등의 응답도 여전히 존재했다. AI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자동 번역’ (38.3%)과 ‘콘텐츠 제작’ (37.1%)이 비슷하게 선택되었고,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 (1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AI 관련 교육이 선교사 훈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아 AI가 선교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사용에 따른 윤리적·신학적 우려는 ‘매우 크다’ (15.7%), ‘다소 있다’ (59%)로 전체 4분의 3 이상이 우려를 표했다. 사람 중심의 사

역에서 AI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영역에서는 가능하다’ (43.1%)와 ‘불가능하다’ (23.7%)로 나타나 조심스러운 현실 인식을 반영했다. AI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역을 보완하는 보조 수단’ (44.9%)으로 보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AI 기반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윤리·신학 기준’ (57.6%)과 ‘사역자 교육 체계’ (30.6%)를 꼽았다. 즉, 기술보다 신학적 성찰과 인간 중심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데이터 기반 선교의 현실과 과제

데이터 수집 수준은 ‘비정기적 메모 수준’ (50%), ‘비구조적 정기 수집’ (34.5%), ‘전혀 수집하지 않음’ (8%), ‘체계적 구조화’ (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나, 실제 관리 체계는 미비함을 보여준다.

주로 수집되는 데이터는 ‘제자훈련·성경공부 참여’ (48%), ‘재정·후원 관리’ (32%), ‘복음 반응률’ (20%) 순이었으며, 활용 목적은 ‘사역 전략 수립’ (43.2%)과 ‘사역 평가’ (39.1%)가 중심이었다. 온누리교회 선교사역본부 양식 사용 경험은 ‘일부 사용’ (49.2%), ‘정기적 사용’ (11.4%)으로, 60% 이상이 활용 중이었다.

정책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데이터 유형으로는 ‘선교사 소진도 및 회복도’, ‘사역 성과 및 영향력 평가 지표’, ‘미전도 종족(UPG) 접촉률’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데이터 수집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32.5%였으나, 대다수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향후 데이터 기반 전략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현장 환경에 맞춘 유연한 설계’ (71.2%)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데이터 교육 및 해석 훈련’ (35.1%), ‘자동화된 수집 시스템 구축’ (21.6%)이 뒤를 이었다.

선교사의 어려움과 교회의 지원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복수 응답)으로는 ‘인간관계 갈등’ (26.3%)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 문제’ (16.5%), ‘재정적 어려움’ (13.8%), ‘자녀 교육·가족 돌봄’ (14.3%), ‘영적 침체’ (10%) 등이 뒤를 이었다(그림 5). 이 결과는 선교의 어려움이 단순히 재정적 요인보다 관계적·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온누리교회와의 관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복수 응답)으로는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57.5%), ‘사역 방향에 대한 협력과 존중’ (40.2%), ‘파송 당시의 지원과 격려’ (38.6%), ‘재정적 후원’ (36.3%) 등이 꼽혔다. 이는 선교사들이 물질적 지원보다 관계적 동행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온누리교회의 선교 방향

온누리교회가 40주년 이후 선교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방향으로는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첫째, ‘다음 세대 선교사 훈련 및 파송’ (50.9%), 둘째, ‘선교사 돌봄 및 회복 사역 체계화’ (34.7%), 셋째, 현지인 사역자 양성

과 리더십 이양(30.8%) 등이 제시되었다. 이 결과는 선교사 개인의 소진(burnout)과 회복의 문제, 그리고 세대 전환의 필요성이 현장 전체의 공통된 과제임을 보여준다. 즉, 미래 선교의 지속가능성(Next Generation)과 현재 사역자의 회복력(Resilience)을 함께 세워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로 요약된다. 온누리교회 선교의 지난 40년이 ‘보냄과 헌신의 역사’였다면, 다가올 40년은 ‘연결과 회복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AI와 데이터, 융합과 세대, 그리고 영성과 동행이 하나로 엮일 때, 온누리교회는 Acts29를 넘어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성 패트릭은 누구였을까?

3월 17일은 ‘성 패트릭의 날’이다. 누군가 “도대체 성 패트릭은 누구였나요?”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에서 뱀을 쫓아낸 인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사람(사실 아일랜드인이 아니다)의 삶에는 훨씬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의 굳건한 믿음은 에메랄드 섬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성 패트릭에 대해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성 패트릭은 서기 390년경 로마령 브리튼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가 10대였을 때 약탈하러 온 아일랜드 침입자들이 집을 공격했다. 성 패트릭은 붙잡혀 아일랜드로 끌려갔고, 그를 양치기로 일하게 한 아일랜드 왕에게 팔려 갔다. 토머스 케이힐은 그의 뛰어난 저서 <아일랜드가 문명을 구한 이야기>에서 성 패트릭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런 노예 양치기들의 일은 혹독할 정도로 고립된 것이었다. 몇 달씩 혼자 산속에서 지내야 했다.”

성 패트릭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배고프고, 외롭고, 두렵고, 몹시 추운 상황 속에서 성 패트릭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고백록에 이렇게 썼다.

“나는 낮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나를 둘러싸는 것을 느꼈다.”

둘째, 하나님은 성 패트릭을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 믿음으로 인도하셨다. 붙잡혀 온 지 6년 뒤 하나님이 꿈속에서 성 패트릭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굶주림이 보상을 받았다. 너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보라, 너의 배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음성에서 순종해서 도망친다면 성 패트릭은 ‘도망 노예’가 되어 언제든지 붙잡혀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 젊은 노예는 약 321km를 걸어 아일랜드 해안에 도착했

고, 거기서 기다리던 배에 올라 브리튼과 가족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그 불안정한 젊은이는 이전의 삶으로 다시 정착할 수 없었다. 결국, 성 패트릭은 하나님이 자신을 수도원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사제로, 그리고 주교로 서품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일랜드를 절대 잊지 않았다.

셋째, 아일랜드에서 탈출한 지 30년 뒤 성 패트릭이 선교사로 돌아왔다. 5세기 아일랜드인은 이교적이고 폭력적이며 야만적인 민족이었다. 인신 제사가 흔했다. 성 패트릭은 그 위험을 알고 있었고, 이렇게 썼다.

“나는 살해당하고,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더라도, 내게 닥치는 어떤 일이라도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케이힐이 지적했듯이,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인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그의 글 전반에서 드러난다. 그는 그들의 영적, 육체적 안락을 끊임없이 염려했다. 성 패트릭을 통해 하나님

은 수천 명을 회심시키셨다. 많은 기독교 절기와 마찬가지로 ‘성 패트릭의 날’도 본래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다. 우리는 패레이드와 종이로 만든 난쟁이 요정, 초록색 옷을 입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성 패트릭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믿고 있지만, 그가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뱀을 쫓아낸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 패트릭을 사용해서 아일랜드에 견고한 믿음을 가져오셨고, 민족을 영원히 변화시키셨다. 그러므로 누군가 “성 패트릭은 누구였나요?”라고 묻는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성 패트릭은 10대 시절 아일랜드인들에게 납치되어 노예가 되었다.”

“둘째, 하나님은 성 패트릭을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 믿음으로 인도하셨다.”

“셋째, 아일랜드에서 탈출한 지 30년 뒤 성 패트릭은 선교사로 돌아왔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인문

무신론자들의 사랑과 기독교인의 사랑



서명수 장로
(수원온누리교회)

프랑스의 고전주의 극작가 몰리에르는 <동 쥐앙>이라는 희곡에서 희대의 파렴치범을 그렸다. 주인공 ‘동 쥐앙’은 수많은 여인을 유혹하고 배신하기를 반복하는 난봉꾼이다. 그는 어처구니없게도 ‘자기

는 진실을 추구하는 자’라고 주장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사랑에 관한 한 진실해야 하는데, 사랑의 열정이 식었음에도 그 사랑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닫힌 방>에서 “지옥은 곧 타인의 시선”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나는 자유의 존재로 남기를 원하는데, 타인은 이런 나를 대상화해서 소유하려 한다는 것이다. 자신도 타인에 대하여 동일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사르트르에게 인간관계란 ‘상호 대상화의 관계’다. 그 입장에서 사르트르에게 사랑이란 타자를 완전히 소유하려는 ‘사디즘’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대상화해서 타자의 소유가 되어 버리는 ‘마조히즘’이다. 따라서 사랑은 병적이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와 라캉은 사랑을 “유아기 경험한 어머니와의 일체감을 되찾으려는 욕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근친상간의 욕망은 절대로 충족될 수 없기에 결핍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결핍을 채워줄 어머니의 대체물을 찾는 끝없는 방황

이다. 또한 사랑의 감정이란 대체물인 타인이 결핍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는 덧없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사랑은 없다고 주장한다.

진화생물학자들은 동물의 성적 행동에 끌림, 애착, 유대가 있는데 이는 도파민,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같은 호르몬의 작용에 의한 효과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간의 사랑을 진화론과 생물학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인간도 동물의 성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에 좌우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매우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어 보이는 주장들이다. 그런데 과연 맞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

동 쥐앙은 사랑의 열정은 변하는데 약해지는 쪽으로만 변한다고 생각했고, 커지는 쪽으로도 변한다는 사실은 간과했다. 또 사랑에 기다림과 오래 참음과 같이 열정이 아닌 차가운 이성적 요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사르트르는 최고의 가치를 개인의 자유에 두었다. 그래서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다 보니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무시했다. 그 결과는 뻔하다. 사르트르에게 인간은 사랑을 거부당한 채 홀로 사는 고립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프로이트나 라캉은 욕망과 관련된 유아기의 경험이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들은 왜곡된 경험만 중요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인간은 히스테리나 강박증에 시달리는 ‘성인-아이’일 뿐이며, 타인은 성인-아이의 결핍을 채워줄 그러나 결국에는 채워줄 수 없는 대상일 뿐이다.

진화생물학자들은 인간의 사랑을 호르몬 작용에 의한 감정 상태로만 파악한다. 감정에 대한 의식의 역할, 즉 감정이 의식적 사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 감정이 의식에 의해 존재를 인정받아 더 강력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약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역시 놓치고 있다.

이처럼 이들의 주장에는 논리적 허점들이 많다. 이들의 주장이 틀릴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이들이 인간을 사랑의 주체로 놓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무신론자이기에 인간 중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인간이 사랑의 주체가 될 때, 그 사랑은 열정을 푸는 도구이거나, 아예 불가능한 기획이거나, 실체가 없는 환상이거나, 화학적 효과에 대한 착각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한다. 무신론자들은 사랑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는 결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기독교에서 사랑은 가능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4:10a)라고 말했다. 즉,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소유하기를 거부하셨다. 인간 스스로 범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죄양으로 아들을 희생시킨 무조건적 사랑의 주체다. 인간은 이 완전한 분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응답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죄의 구속에서 벗어난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순수하고, 고결하고,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배웠다. 아니 이것은 배워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도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 동료들을 보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 그냥 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상이, 특히 무신론 사상가들은 사랑의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이들에게 사랑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해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엎려는 이들의 기획에 속임 당할 수 있다.

‘온누리세계관학교’는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론들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번에 캠퍼스에서 처음으로 수원온누리교회에 ‘수원 세계관 스쿨 기초반’이 개설된다. 많은 성도가 참여해서 세상의 지혜와 사탄의 교묘함에 희생양이 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한다. 특히 과학으로 위장한 진화론과 인본주의로 위장한 무신론의 교육환경 속에서 힘겹게 싸우는 우리 자녀들에게 변증의 능력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한다.

수원 세계관스쿨 기초반
일시: 3월 21일~4월 18일
매주 토 오후 2시~4시
장소: 1. 5강(수원)CT밸리 C동 1층 예배실,
2. 3. 4강(Zoom)
신청: 아이스쿨(회비 1만 원)
문의: 윤상우 팀장(010-5080-4067)

이슈(Issue) 바로보기!

그 땅에는 왜 분쟁이 계속될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이란과 벌이는 전쟁에 인근 아랍 국가들까지 참여하는 등 확산하는 모양새다. 성경의 배경이자 복음이 생성된 중동 땅에 어떤 역사가 있었기에 이렇게 심각한 분쟁이 계속될까?

예수님 승천 이후 40년쯤 지난 AD 70년,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는 결사적인 독립 투쟁에 나섰다. 이에 로마는 타이투스 장군을 보내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포위했다. 심지어 자기 아기를 구워 먹는 엄마가 나올 정도로 탈탈 굶겨서 죽였다. 금빛 찬란한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어 버렸다(막 13:2). 수만 명의 유대인이 전 세계로 끌려가는 디아스포라가 벌어졌다. 135년 바르 코크바가 주동하는 추가 저항이 있었지만,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잔인하게 진압하는 동시에 유대인에게 철저히 원수였던 블레셋(Philistine)의 이름을 따 그 땅을 ‘팔레스타인’ (Palestine)으로 부르게 했다. 예수님의 올리브산 예언 중에 상당수가 성취된 사건이었다. 특히 <누가복음> 21장 24절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대다수 유대 민족이 떠나 버린 팔레스타인 땅은 황폐해졌다. 하지만 638년 이슬람 세력이 점령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632년 마호메트가 사망한 뒤 이슬람 내부는 사우디를 기반으로 한 칼리프들과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배경으로 하는 우마이야 왕조 간에 주도권 다툼이 심했다. 그때 우마이야 왕조 측에서 <코란> 17장 1절(알라의 종을 밤중에 거룩한 사원에서 아득히 먼 사원으로 하늘 여행을 시켰노라)에 나오는 ‘아득히 먼(알 아크사)’ 이란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규정하고, 691년 거기에다 ‘바위의 돐’을 짓게 된다. 이슬람 내에서 예루살렘의 위상을 높여야 그곳을 통치하는 자신들의 입지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바위의 돐

은 지금도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으며, 이슬람은 예루살렘을 3번째 성지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에는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셀 수 없이 등장하지만, <코란>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제2경전인 <하디스>에만 일부 등장한다”면서 이슬람의 주장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돌아보면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BC 63~AD 324), 비잔틴제국(324~638), 이슬람 왕조(638~1099), 십자군(1099~1291), 이집트 맘루크 왕조(1291~1517), 오스만제국(1517~1917), 영국(1917~1948) 순으로 주인이 바뀌며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매번 달라졌다. 2천 년 동안 그 땅에 계속 살던 민족은 없었다.

유럽 등지에서 반유대주의(Anti-semitism)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20세기 들어 시온주의 운동에 힘입어 고향으로 속속 돌아왔다. 하지만 오스만제국 시절부터 주로 소작농 형태로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갈등이 시작되었다. 1947년 유엔은 그 땅에 유대인 국가와 팔레스타인 국가를 동시에 세우자는 제안을 했으나 아랍 국가들은 이를 거절했다.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했는데, 바로 다음날 아랍 연합군이 침공하면서 제1차 중동전쟁이 벌어졌다. 신생아를 놓고 장정 4~5명이 죽어갔다고 나신 꼴이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1973년까지 모두 4차례 이르는 중동 전쟁을 치렀는데, 주로 국경이 붙어 있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등과 싸웠다. 특히 1967년 3차 중동전쟁(6일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등 승리를 거듭하자, 인근 아랍 국가들은 무척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스라엘의 파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평화와 타협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1935년 페르

시아에서 국호를 바꾼 이란은 팔레비 왕조 시절을 지나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무척 친하게 지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자 이란은 신속하게 국가로 승인해 주었다. 이란 정보기관 사바크는 1957년 설립부터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도움을 받았고, 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이란산 석유의 주 고객이 이스라엘이었다.

하지만 1979년 시아파 극단주의 이슬람 혁명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마호메트의 후계자를 정할 때 수니파는 공동체 합의를 중시하는 반면, 시아파는 혈통을 따진다. 이슬람권에서 수니파가 85%를 차지하는데, 소수인 시아파는 이란을 정점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1979년 2월 1일 망명 중이던 호메이니가 개신장군처럼 귀국해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라고 외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돌아섰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제거를 중요 국가 목표로 삼았다. 호메이니 경호를 위해 설립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정예군 이름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쿠드스’ 일 정도다. 이란은 1983년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에 있는 시아파들을 모아 테러단체인 헤즈볼라를 창설한 것을 시작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 시리아에 친이란 민병대, 이라크에 카타이브헤즈볼라, 예멘에 후티반군 등 곳곳에 테러단체를 만들거나 지원했다. 특히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가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에 강도 높은 테러를 벌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침공해 1,200여 명을 학살하고 251명을 인질로 잡아가는 도발을 했다. 배후에는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면서 원격 조종하는 이란이 있었다.

이란은 2000년대 들어 북한 등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세계를

긴장시켰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란과 핵합의(ICPOA)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된 뒤 “이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며 이란의 핵 감축을 믿을 수 없다”면서 이를 무효화하고 핵 포기를 요구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은 여러 차례 협상을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무기가 소형화되어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손으로 넘어가는 일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면서 만일 미국이 못한다면 단독으로도 공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해 6월 이른바 ‘12일 전쟁’을 통해 나탄즈 등에 있는 이란 핵시설을 상당 부분 파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은밀하게 핵탄두 개발을 한다는 의심을 받았고,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도 대량 생산했다. 때마침 작년 말부터 이란에서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당국이 이를 잔혹하게 진압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로서는 명분이 생겼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 손잡고 이란을 공격하게 된 것이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으나, 이란 역시 다른 아랍 국가들을 공격하면서 전선을 확대하는 데다 전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 등 만만찮게 대응하고 있다. 더구나 ‘이슬람 공화국’ 이란 이름과 달리 사망한 호메이니의 아들이자 강경파인 모즈타파를 제3대 최고지도자로 사실상 세습하면서 전쟁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계속)



최홍섭 성도
(이춘공동체, <이스라엘과 그 적들> 저자)

아부다비온누리교회 소식

“속히 참된 평안이 찾아오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늘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동의 상황과 아부다비온누리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격화된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인해 아부다비온누리교회는 성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신속하게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이곳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들도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고, 대부분 직장 역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붐비던 거리의 차량 흐름도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거주민들 모두가 외부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며 조심

스럽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염려하셨을 교회의 안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감사하게도 아부다비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현지 한인 사회에는 아직까지 피해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아부다비는 두바이에 비해 방공망이 훨씬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지상의 일상은 대부분 조용하고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따금씩 하늘 위로 미사일과 드론을 방어하는 요격 과열음이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가 전쟁의 한가운데 있음을 실감하곤 합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모두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

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교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은혜 가운데 예배처소가 되어주던 ‘바라가 현장교회’는 파견되었던 한국 성도님들 대부분이 본국으로 복귀하면서 2년 동안의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루와이스 지역에는 아부다비온누리교회 형제 교회인 ‘루와이스온누리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린이들까지 20~30명 남짓한 성도들이 가정 교회 형태로 모여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속히 참된 평안이 찾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걸프 국가의 리더들과 이란 사이에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감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속히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며, 무엇보다 이란이 깊은 혼란을 딛고 안정 속에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도균 목사
(아부다비온누리교회)

크리스천의 자녀 양육

불안한 손으로 빛은 금송아지



장보원 팀장
(고양은평공동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팀, <소리
로 흐르는 육아> 저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유튜브 알 고리즘이 ‘아이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5가지’를 추천하고, 맘카페에서는 “7세인데 영어 챗봇 안 읽으면 늦은 건가요?”라는 글에 심장이 철렁한다. 저녁에

는 옆집 엄마의 “우리 애는 요즘 코딩에 빠져서…”라는 무심한 한마디에 조용히 화면 검색을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 할머니 세대는 일곱 남매를 거뜬히 키우면서 단 한 권의 육아서도 읽지 않았다. 발달 검사도, 기질 분석도, 맘카페도 없이 말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안하지 않았다. 그들의 육아 철학은 단 한 문장이었다.

“밥 먹어라.”

우리는 유기농인지, 글루텐 프리인지, 탄수화물 비율은 적절한지 검색하

느라 정작 밥을 못 차리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육아 정보를 손에 쥔 우리가 가장 불안한 부모라니, 이 기막힌 역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불안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 뇌 과학은 불안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뇌의 생존 시스템에 깊이 각인된 반응임을 보여준다. 뇌의 편도체(amygdala)는 위협을 감지하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해서 온몸을 경계 태세로 전환시킨다. 이 시스템은 원래 원시시대 맹수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부모들에게는 맹수 대신 ‘입시 경쟁’, ‘또래 비교’, ‘SNS 속 완벽한 가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문제는 우리 뇌가 실제 위협과 상상 속 위협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내 아이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만으로도 편도체는 사자가 달려드는 것처럼 반응한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분비는 부모의 전두엽, 즉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억제하고 감정적이고 충

동적인 반응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불안한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더 쉽게 화를 내고, 더 많이 통제하려 하며,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불안은 부모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는다. 거울 뉴런과 후성유전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고스란히 자녀에게 흘러간다. 그러나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는 뇌의 화학작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불안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몸부림’이다.

성경은 이 불안의 본질을 놀라운 만큼 정확하게 보여준다.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극심한 불안에 휩싸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지도자, 알 수 없는 광야의 미래. 이 견딜 수 없는 불확실성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금

“크리스천 부모는 내 안에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붙잡아야 한다.”

패물을 모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절했다. 금송아지는 그들의 신앙고백이 아니었다. 단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체물이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두려웠고, 적어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부모의 불안도 그 구조가 놀랍도록 닮아있다. 자녀의 미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당장 확인할 수 없으며, 양육의 결과는 수십 년 후에야 드러난다. 이 견딜 수 없는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금송아지’를 만든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명문대의 간판이고, 누군가에게 그것은 아이의 성적표이며, 누군가에게 그것은 완벽한 양육 매뉴얼이다. 눈에 보이는 성취, 수치화된 결과, 검증 가능한 스펙으로 불안을 달래려는 것이다. 그러나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했듯이, 우리의 금송아지도 결코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다. 성적이 오르면 더 높은 성적을 원하게 되고, 좋은 학원에 보내면 더 좋은 학원이 눈에 들어온다. 금송아지는 평

안을 주는 대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불만의 불길을 키울 뿐이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부모는 이 불안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한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롬 12:2).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시대가 강요하는 불안의 프레임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라는 담대한 선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해야 한다, 뒤처지면 끝이다”라고 속삭이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금송아지 앞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불안의 목소리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흥미롭게도 이 말씀은 뇌 과학적으로도 깊은 울림을 준다.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반복적인 사고 패턴에 의해 실제로 물리적 구조가 변화한다. 불안한 생각을 반복하면 불안 회로가 강화되고, 감사와 신뢰의 사고를 훈련하면 평안의 회로가 강화된다. 바울이 말한 ‘마음의 새로워짐’은 영적 명령인 동시에 뇌의 신경 회로를 재설계하라는 과학적 처방이기도 한 것이다. 불안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신뢰’다. 완벽하게 준비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평안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다.

육아는 흐른다. 이것이 이 연재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이다. 불안한 부모의 편도체에서 분비된 코르티솔은 눈빛을 통해, 목소리를 통해, 가정의 공기를 통해 자녀에게 흘러간다. 그러나 반대도 참이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은 부모의 깊은 안정감도 같은 경로를 따라 자녀에게 흘러간다. 크리스천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완벽한 양육법을 찾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붙잡는 것이다. 당신이 금송아지 앞에서 돌아서는 그 순간, 당신의 평안은 이미 자녀에게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글그림 명난희

97.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



성경 QUIZ



1.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사순절은 주일(일요일)을 빼고 총 며칠 동안일까요?
① 10일 ② 30일 ③ 40일 ④ 50일

2.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에서 유래했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① 에덴동산 ② 광야 ③ 예루살렘 성전 ④ 갈릴리 호수

3. 교회에서는 절기마다 다른 색깔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기억해요. 예수님의 왕 되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사순절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① 빨간색 ② 초록색 ③ 흰색 ④ 보라색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선정).

온누리도서관 독후감대회 수상작-〈예수의 생애〉를 읽고

“예수님 따르는 어린이!”

책 〈예수의 생애〉 주인공인 예수님은 우리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때는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시기였다. 예수님은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 또 여러 기적과 참 진리를 가르치셨다.

이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세례요한의 참수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잔인함이

참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나사로 사건이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것을 믿은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일이다. 요셉은 유대교 지도자가 무서웠지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고, 니고데모는 율법학자로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두려움 없이 장례를 도왔다. 두 사람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

다.

책 〈예수의 생애〉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이 자라고 싶다. 믿음이 더욱 자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



엄주안 학생
(서빙고 소년1부)

결혼을 잃어버린 세대와 청년사역의 역할

‘결혼비전스쿨 With 4U 1기’가 밝힌 희망



연규선 집사
(결혼비전스쿨 With 4U
팀장, 가정사역공동체)

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1기 결혼비전스쿨 With 4U(구 결혼코칭스쿨)’는 강의와 간증, 소그룹 나눔을 통해 싱글 또는 커플 청년들이 하나님께 설교하신 결혼을 함께 고민하

고 디자인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결혼비전스쿨 With 4U’에서 눈에 띈 점은 참가자들의 연령대인데, 특히 2·3회차 프로그램에서 40대 초반(40~44세) 연령대의 참여 비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며 핵심 연령층으로 확인됐다. 2차에서는 전체 32%, 3차에서는 30대 초반(30~34세)과 같은 비율인 38.5%로 조사됐다. 45세 이상 참여자 비율도 8%(2차)에서 11.5% (3차)로 소폭 증가했다. 이를 종합하면 ‘결혼비전스쿨 With 4U’는 40대를 중심으로 3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한 연령 분포 이상의 의미를 보여준다. “이제 와서 결혼을 생각해도 될까?”,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고 말하는 참가자들의 고백처럼, 청년들이 결혼을 단순히 미룬 것이 아니라 어쩌면 ‘결혼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채 서성이고 있는 세대’일 수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낸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이제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두려운 도전이 되어버렸다.

결혼을 다시 꿈꾸게 한 3단계 여정

사단법인 행가래(행복한 가정, 내일의 축복) 운동본부와 온누리교회가 함께 진행한 ‘결혼비전스쿨 With 4U’는 지원자 총 70여 명에게 선제적 가정사역(Pro-active Family Ministry) 3단계 모델을 제시했다. ‘젊은부부학교’나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가 이미 결혼한 가정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사역이라면, ‘결혼비전스쿨 With 4U’는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청년들이 결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을 자신의 삶 속에서 디자인해 보도록 돕는다.

선제적 가정사역 3단계 여정 그 첫 번째는 ‘내적 회복과 자기 이해를 통해 관계 단절에서 벗어나기’다. 많은 청년이 ‘나는 혼자자 좋다. 결혼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며 이성과의 관계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 마음의 상처와 낮은 자존감으로 관계를 시작할 힘을 잃고 무너진 상태다. ‘결혼비전스쿨 With 4U’는 건강한 자아상 회복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비전스쿨 With 4U 참가자들은
“결혼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됐다”,
“이 강의는 꼭 추천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한 참가자는 “결혼 전에 내 안의 불순물과 두려움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삶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정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멘토 가정들이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과정’이다. 많은 청년이 “우리 세대의 결혼관은 기성세대와 다르다”라고 말하며 소외감과 단절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비전스쿨 With 4U’는 결혼을 단순한 계약이 아닌 언약으로 재정의하며,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본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결혼 10년 차부터 30년 차에 이르는 멘토 부부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회복, 갈등과 화해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다. “‘상대가 정말 내 짝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결혼 적령기가 따로 있나요?’ 같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는 간증이 이어졌다.

세 번째 단계는 ‘현실적 적용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특히 많은 청년이 느끼는 가장 큰 장벽은 재정적 부담이다. 그러나 교회 안팎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받지 못한 채 두려움만 키워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결혼비전스쿨 With 4U’는 결혼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시작하는 완성형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채워가는 여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다. 참가자들은 계획적인 소비 습관과 현실적인 재정 설계, 공동의 목표 설정에 대해 배우며 함께 세워가는 삶을 상상하게 됐다. 결혼식은 화려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의 고백이라는 의미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결혼비전스쿨 With 4U’에서는 ‘아름답고 친밀한 성(性)’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궁합이나 세속적인 기준이 아닌 말씀에 기초한 성 개념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 강의는 자신과 상대의 몸을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인식 전환을 가져왔다.

청년사역의 순환적 구조와 4가지 원리

청년사역의 핵심 구조와 원리는 목회자-멘토-멘티(청년)로 이루어진 순환적 삼각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사역의 주 대상은 청년이다. 청년사역자(멘티)는 사역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라는 독특한 위치를 갖는다. 지원자 청년이 ‘결혼비전스쿨 With 4U’ 수료 이후 사역자로 참여하고, 청년사역자는 멘토로 성장하는 창의적인 순환 연결 고리가 형성된다. 실제로 한 참가자 커플은 ‘결혼비전스쿨 With 4U’ 수료 이후 청년사역자로 자원했다. 이렇게 치유 받은 이가 다시 다른 이를 세우는 것은 ‘청년이 청년을 일으키는’ 선순환 모델을 지향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청년들은 사역의 과정과 결과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깨닫게 된다. 창의성과 자발성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리는 비전 중심의 동력과 멘토의 역할이다. 청년사역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비전에 달려 있다. 세상에서는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하지만, 청년사역에서는 비전으로 헌신하고 움직인다. 목회자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멘토와 청년이 함께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며 키워나갈 때 사역은 지속 가능성을 갖게 된

다. 여기서 멘토는 성인공동체에서 가정사역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중보기도를 담당한다. 이들은 마라톤 경기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처럼 청년들과 함께 뛰며 곁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힘을 북돋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의 관점’이다. 오늘날 사회는 혼자 사는 삶을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SNS에는 자유롭고 화려한 싱글 라이프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결혼은 희생과 책임의 무거운 짐처럼 그려진다. 그러나 교회의 청년사역은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께 만드신 가정을 세우는 강력한 문화적, 영적 저항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결혼사역은 강의 중심의 프로그램일지라도 매칭의 기회를 열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매칭은 단순한 소개팅이 아니라 자아상의 회복과 결혼관 정립,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의 전환을 동반하는 총체적 과정이다.

현재 온누리교회에는 1만3천여 명의 청년이 있다. 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성인공동체로 옮겨갈 때, 교회는 비로소 한 단계 더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다. 이들은 다음 세대의 남편과 아내, 부모이자 교회 미래의 리더가 될 존재이기에 청년사역의 방향은 앞으로 10년, 20년 뒤 교회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결혼비전스쿨 With 4U 1기’는 탁월한 강의 콘텐츠와 청년사역자들의 헌신, 멘토들의 중보기도, 그리고 참가자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만나 빛어낸 천국 잔치 같은 현장이었다. 멘토와 멘티가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이 천천히 열렸고, 그 변화는 소그룹 활동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총 3회에 걸쳐 조사된 전반적인 만족도는 1회차 93.5%, 2회차 100%, 3회차 96.2%로 나타났다. 모든 회차에서 불만족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결혼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됐다”, “이 강의는 꼭 추천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 자매 참가자는 이렇게 고백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결혼만은 이상하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을 때 더 큰 축복과 은혜가 기다린다는 믿음이 생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결혼코칭스쿨’은 2026년부터 ‘결혼비전스쿨 With 4U’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결혼비전스쿨 With 4U 2기
일정: 3월 14일~28일, 대학교 이룸
문의: 010-5059-4459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
강신의 장로“공동체성경읽기의 유익과
풍성한 영적 성장”

강신의 장로는 그 무엇보다 ‘공동체성경읽기의 유익’과 신앙 서적 나눔이 가져오는 ‘풍성한 영적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듣고 읽는 것은 수동적인 경청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본래 성경 읽기는 성경 사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에서 화자가 낭독하면 청자가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경청자로서 듣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강신의 장로는 개인 성경읽기와 공동체 성경 읽기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했다.

“개인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경 읽기는 자칫 주관적인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원하는 부분만 읽거나, 내용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듣고 읽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듣고 읽는 유익은 신앙 서적 나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서는 신앙 서적을 오디오북으로 듣고 눈으로 읽으면서 참가자 모두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나 생각을 나눕니다. 책의 내용을 토론하거나 논쟁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저자의 메시지를 공동체가 함께 경청하는 훈련입니다. 참가자들은 신앙 서적을 더욱 집중해서 듣고 읽게 되고, 서로 다른 문장을 나누면서 이해의 폭도 넓어집니다.”

왜 성도들이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 참여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설득력 있었다.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듣지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길게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듣는 훈련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서는 먼저 〈시편〉을 기도문으로 듣고 읽은 다음, 구약 4-5장, 신약 2-3장을 차례로 읽습니다. 그러면 약 40분 동안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듣고 읽는 전통 덕분에 그 훈련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0분 동안 말씀을 듣고 읽는 훈련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점점 집중하게 되고, 한 단어가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 공동체,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

이번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서는 성경과



금요PRS(공동체 성경읽기모임) 담당 강신의 장로.

더불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함께 듣고 읽는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됨’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이고,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식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아는 것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강신의 장로가 아직도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 참여를 주저하는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신앙을 꾸준히 유지하며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과 배움 속에서 사는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가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듣고 읽으며 배우는 일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합시다!”

문의: 010-5603-5500

스포츠선교팀, ‘태권도 선교 이야기’ 특별 강의

3월 23일 월요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홀

온누리교회 스포츠선교팀이 태권도를 통해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오는 3월 23일(월)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홀(선교관 1층)에서 ‘태권도 선교 이야기’를 주제로 특별 강의를 열린다.

‘태권도 선교 이야기’에서는 태권도 공인 9단이자 32년 동안 태권도 선교에 헌신한 김용기 선교사(세계 스포츠선교회 회장)가 강의한다. 생생한 사역 현장 이야기와 스포츠선교의 가능성과 비전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010-8080-6967)로 하면 된다.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거나 지도하는 온누리교회 성도가 대상이다.

박현 팀장(스포츠선교팀)은 “우리의 평범한 달란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태권도를 활용해서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문의: 010-8080-6967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예수님을 따라가는 리더!

‘차세대 리더십 영성 수련회’ 개최

2026 차세대 리더십 영성 수련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리더’가 지난 3월 7일(토)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에서 열렸다.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인천, 강동, 영종, 서산) 차세대 각 부서 교역자 및 리더십 382명이 참석했다.

이번 차세대 리더십 영성 수련회에서는 찬양과 기도, 캠퍼스 소개, 특별강의, 설교, 교역자 특순, Q&A, 퀴즈쇼, 시상식, 연합기도회 등의 순

서가 이어졌다. 메시지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리더’를 주제로 전했다. 특별 강의는 이태열 장로(차세대사역본부 담당 장로) ‘다음세대유망단으로 장로의 역할’, 김선재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 ‘씨 뿌리는 리더십’을 주제로 했다.

차세대 리더십 영성 수련회는 차세대 리더십을 격려하고, 교회의 비전을 나누며, 영적 회복을 도모하는 시간이다.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과테말라 공식 NGO 등록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달 과테말라 현지 NGO 공식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 현지 사역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한층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더멋진세상 과테말라는 첫 사업으로 과테말라 에스쿠인틀라 지역 산 안드레스 오수나 화산마을 보건소 지붕 개선 사업을 했다. 지난 3월 13일(금) 준공식이 있었다. 이 지역은 2018년 화산 분출 피해 지역 긴급 구호사업이 지역개발 사역으로 확장된 곳이다.

NGO 더멋진세상 과테말라 지부에서 취약 계층 200가구 화덕 지원 사업, 산 후안 라 라구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투여, 라 아우로라 동물원 견학, 두란노어머나학교 및 결혼학교 운영, 오케스트라와 태권도 교실 운영 등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는 “지역사회가 협력하면서 회복하는 건강한 자립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홍하영 기자

메디엑세스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NGO 메디엑세스 아웃리치(BEE팀, 마노아팀, 샬롬팀) 봉사자를 모집한다. BEE팀은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내과, 소아과, 치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를 하고, 고아원 검진과 어린이 캠프를 진행한다. 의료진(산부인과, 안과)과 어린이 사역, 의료 사역 봉사자를 기다린다.

마노아팀은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 람퐁과 자카르타에서 내과, 소아과,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고, 어린이·청소년 사역 및 문화 사역을 한다. 의료진을 추가 모집한다.

샬롬팀은 7월 중순 필리핀에서 내과, 소아과, 치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진료를 한다. 의료 사역을 함께할 의료진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이메일(mediaaccess@naver.com)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디엑세스 2026 아웃리치’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570-7110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CGN 기획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3월 15일~4월 30일 참가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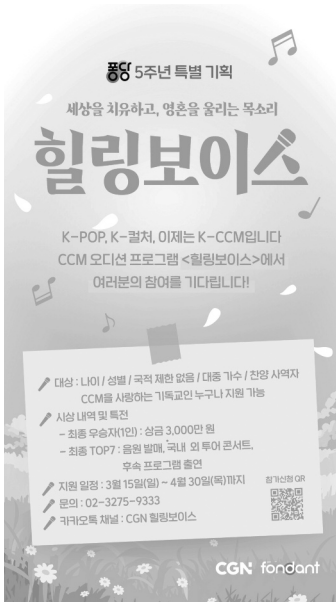
CGN이 기획한 K-CCM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가 막 오른다. 참가신청은 3월 15일(일)부터 4월 30일(목)까지 받는다. 지원서와 무반주 가창 영상(자유곡 1개, 지정곡 20곡 중 1곡 1분 이상), 사진 파일을 이메일(cgnhealingvoice@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영상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해야 한다. CCM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미 데뷔한 프로 가수나 찬양사역자도 참가할 수 있다(더 자세한 사항은 ‘힐링보이스’ 공식 홈페이지(healingvoice.cgnkorea.net) 참고).

‘힐링보이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모집이 끝나는 5월 심사를 통해 예선 진출자를 선발한다. 이후 7월부터 예선, 본선, 결선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정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본선 무대부터는 탈락자가 발생하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된다.

‘힐링보이스’ 최종 우승자 1인에게는 상금 3천만 원을, 결선에 진출하는 TOP 7에게는 CCM 음원 발매, CGN 주최 국내외 투어 콘서트 참가, CGN 프로그램 출연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문의: 02-3275-9333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CGN, ‘2026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 개최

3월 30일 월 오전 10시 경북 구미상모교회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이 ‘2026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실습편(이하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을 3월 30일(월) 오전 10시 경상북도 구미 상모교회에서 개최한다.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는 교회 미디어 사역자와 봉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가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고, 분야별 다양한 장비를 직접 체험하면서 전문

이번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에서는 음향 기초, 음향 응용, 라이브 영상&자막, 조명 분야를 다룬다.

참가신청은 QR 코드로 하면 된다. 분야별 선착순 모집한다(음향 기초 15명, 응용 15명/라이브 영상&자막 10명/조명 10명). 회비는 5만 원(단체 3인 이상 신청하면 1인 4만 원).

/ 박지혜 기자



양재 일대일 동반자 수료자

수료예배: 3월 22일(주일) 양재 2부 예배 /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대상: 2025년 11월 11일~3월 10일 사이에 완료보고된 성도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동반자/양육자
■ 강남A 김병진 이윤빈 김용성 김주홍 김해남 임명빈 신광철 손호영 안경숙 김화인 안희숙 서연주 이은자 이은진 이호택 권태경 장 미 최혜진 지형욱 김화인	이형희 이석일 최운진 김선희 황혜옥 최근욱	■ 서초B 신공주 이소영 신남진 허해란 이재원 김윤숙 장미진 조해정 진수경 김승현 한지연 신선이	■ 온소망 강태구 김원철 남민경 김혜겸 박상영 김규하 박창순 임동진 박혜윤 이진희 배다니 정인애 서예안 최보비 오승주 김일현 우희정 조미용 이규민 김선천 조은샘 이시진 최 원 김윤식	■ 허브 강유원 송희연 권예진 이지현 김승주 강민성 김영서 김민성 김정직 이상준 김하영 이상명 박 결 도재현 박효문 양은영 이하은 황연진 이현수 이종현 이현호 오철호 임연택 최혜정 전현주 정현주 정성준 배장원 정진수 김일호 정희원 임경영 조대형 김선규 조문주 김소영 채홍윤 박종배 최지민 김은미 최지민 김호윤 최혜란 정세진 홍규표 이명열 홍은기 김승현

양육반자 수료자
■ 양재 김성민 신지영 김성욱 신현옥 김혜미 양윤정 노현수 여민호 김미경 유진경 김관식 박현석 김미영 박혜정 김효진 성백훈 문희수 안세준 신찬승 안은주 오주현 양주일 윤미라 양희영 정오경 이강은 정정희 이미경 최영민 이미라 최홍구 이예은 홍선우 이하늘 ■ 김명현 장로반 백상미례 정주영 오지은 최정윤 윤여홍 최혁준 이명은 홍민정 이소영 홍은주 이정용 황석준 홍승우 이은경 ■ 이강현 목사반 LEE 김진영 LYDA 김태희 HYOEUN 민성원 ■ 박동현 장로반 김문경 배수현 김민경 서미경

통일선교학교 4기 수강생 모집

‘통일선교학교 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 14일부터 5월 9일(5/2 휴강)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과정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구글폼(QR코드 참고)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아이스쿨, 문자메시지로 하면 된다.

문의: 010-2951-1322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설명회 개최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Seoul Providence School)’에서 새 학년 설명회를 개최한다. 5~9학년 학부모가 대상이다. 새 학년 설명회는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온누리청소년센터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교육환경과 커리큘럼 등을 소개한다. 가을학기 원서는 4월 24일까지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홈페이지(seoulprovidence.org)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792-0927

전태영 작가 초대전 ‘감추인 십자가’

온누리아트비전에서 외부 작가 초대전을 열고 있다. 3월 10일(화)부터 4월 5일(일)까지 전태영 작가 초대전 ‘감추인 십자가’가 열린다. 온누리아트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작품 30점을 전시한다.

제작 기간이 무려 3년 걸린 ‘몽돌 이야기’가 첫선을 보인다.

문의: 010-3128-2332
/ 남현영 수습기자

건강한 만남 Love & Marriage 스쿨 1기 모집

4월 3일~24일 매주 금 오후 7시

소수정예, 프라이빗 건강한 만남 Love & Marriage(러브 & 메리지) 스쿨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행가래 비전센터에서 진행된다. 5월 1일(금)에는 리트릿이 이어진다.

Love & Marriage 스쿨은 하나님의 가정을 사모하는 미혼 청년들이 진솔한 만남을 갖고, 건강한 관계와

결혼을 준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추구하는 미혼 남녀 청년이 대상이다.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3월 23일(월)까지 QR 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30만 원. 참가자 보호를 위한 검증 절차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10-3340-7039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참가자 모집

3월 21일~5월 16일 교육, 4월 4일~6월 27일 양육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등학생의 부모, 조부모, 차세대 교사 중에서 성인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반 및 양육자반을 수료한 성도가 대상이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은 3월 21일(토) 오전 9시 20분 온라인(Zoom)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차례 교육실습을 한다. 3월 22일(일)부터 4월 3일(금)까지 영상 강의, 3월 29일(일) 오후 7시 50분, 4월 11일(토) 오전 9시 20분, 5월 16일(토) 오전 9시 20분 온라인(Zoom) 실습을 한다. 교

육실습 이후 4월 4일(토)부터 6월 27일(토)까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12회)를 마쳐야 수료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3월 15일(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다만 양육자 용과 자녀용 교재 2권 및 필독서(〈성장〉, 최은영 지음)를 개별구매해야 한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은 부모나 조부모, 차세대 교사가 양육자가 되어 초등학생 자녀와 일대일로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전수하도록 돕는 훈련이다. 문의: 010-4277-4429

회복사역 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4월 4일~6월 20일 매주 토 오후 2시 양재 JDS홀, 충성홀

회복사역 하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양재온누리교회 JDS홀과 충성홀에서 진행된다.

회복사역 하트스쿨은 가족이 함께 레크레이션, 미술치료, 가족공동 벽화 그리기 등에 참여하면서 건강

한 자아상을 형성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대상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들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가족당 15만원.

문의: 010-3710-9781
/ 남현영 수습기자



전도폭발훈련 훈련자 간증



/ 황진기 팀장(전도폭발훈련 양재주일반)

전도하면서 받은
세 가지 은혜

전도폭발훈련을 섬긴 지 6년 됐다. 처음 아내가 전도폭발훈련을 함께 하자고 권유했을 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내 사업이 우선이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계속 권했다. 모태신앙이자 대학 생활은 CCC가 전부였을 만큼 신앙이 중요한 내게 아내의 제안은 거절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그렇게 전도폭발훈련을 시작했고, 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섬기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

첫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일하면서 만나는 파트너들, 택시기사님들, 미용실 원장님들, 마트 직원들, 노방전도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전도대상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전도기회를 엿봤다.

둘째, 이 땅의 그 어떤 기쁨보다 전도의 기쁨이 최고다. 아내가 남편을, 조카가 고모를,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친구가 친구를 전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도의 기쁨을 만끽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르심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

셋째, 아내와 전도를 함께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 앞으로도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함께 걷고 싶다. 많은 이들이 전도를 사모해서 훈련받으러 오신다. 대부분 많은 걱정과 부담감을 가지고 훈련을 시작하지만, 마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을 쉬지 않으신다.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전도는 훈련을 통해서 배운다.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기를 바란다. 보잘 것없는 나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신앙시



/ 채현석 집사(동대문중앙공동체)

이란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세상이 참 많이 아픕니다. 여기저기 참혹한 아픔입니다.
조금 자유롭자는 것인데, 조금 평화롭자는 것인데,
조금 편히 먹고 입고 잠잘 수 있기를 바라는 것뿐인데,
내가 신앙하고 싶은 분을 신앙하고 싶을 뿐인데
그렇게 모질게 길이 막힙니다. 그렇게 가슴 아프게 찢겨집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집니다.

역사의 진보가 어찌도 그리 소절음인가요?
자유와 발걸음이 어찌 그리도 핏빛인가요?
영원한 안식은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는 건가요?

이 아픔의 영들을 품어 안고
이들의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할
이 땅의 무너진 성벽 틈을 막아설 기도의 용병들이 다시 필요한가요?
그곳이 사방 천지에 아무리 먼 곳이어도
바다 끝까지 찾으시는 천지의 주재 앞에
기도의 영 부르심을 떠나 어디로 피할 것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 말하지만,
그 기도에서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이어 붙고
핏줄이 돌아나고 살과 가죽이 덮히며 생기가 불어
큰 군대로 일어날 때 그것은 거룩한 믿음으로
막다른 골목길에서 하늘로 뛰어 오르는 반전이 아닐까요?

온누리호스피스 수료 간증



/ 홍경희 집사(성복공동체, 온누리호스피스)

사랑,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은혜

온누리호스피스스쿨 훈련을 받았다. 그 훈련 덕분에 생명의 마지막 자리에 계신 분들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배웠다.

처음 호스피스 훈련을 받을 때는 솔직히 두려움이 앞섰다. 아픈 분들을 대면하고 죽음을 가까이서 마주한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매시간 내 마음을 다듬어 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 사역은 네 힘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하는 거란다.”

호스피스 사역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니를 전하는 사랑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이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새겨졌다. 그로 인해 환우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 하듯 섬기기로 다짐했다.

안양 메트로병원에서 첫 봉사 날이었다. 한

환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드리는데,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느껴졌다. 내가 환우들을 위로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내가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때 내 마음에 이 고백이 흘러나왔다.

“사랑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흘려보내시는 은혜입니다.”

그날 이후 호스피스 봉사는 내게 사명이자 예배의 자리가 됐다.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감사와 설렘이 가득하다. 환우들의 눈빛 속에서,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느낀다.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연약한 이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파워임팩트 베트남 아웃리치 간증



/ 양하연 자매(남양주파워웨이브)

예수님 사랑 표현하는
‘작은 발걸음’

이번 아웃리치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 출발 전날까지 고민했다. 예전에 갔던 동남아 아웃리치에서 좋은 경험을 하지 못했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공부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아웃리치를 가도 될지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참가했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예상했던 것보다 크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첫째, 아웃리치에서 만난 베트남 사람들에게서 순수함과 만족을 배웠다. 우리가 서툰 베트남어로 인사하거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 늘 웃으며 받아주셨다. 작은 풍선과 간식 나눔에도 무척 신나 하면서 재미있게 노는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그들과 반대로 작은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많았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반석교회를 올라갈 때도 배운 게 있다.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험한 길을 오르내렸던 마을 사람들을 떠올리며 큰 도전을 받았다. 너무 쉽고 편안하게 신앙 생활하면서도 감사함 없이 교회만 오가던 내 모습을 회개했다. 그들과 같이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를 기도했다.

둘째, 현지 선교사님이 아웃리치 첫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너희를 베트남에 보내셨을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답은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라서 답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전도와 U&U 활동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나 자신에게 향해있던 시선을 돌려서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일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실천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작은 발걸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장로칼럼

순장은 하나님의 별이다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성숙한 신앙인은 절제와 포용, 관대함과 자존감, 인격과 삶의 태도를 갖추고 있다. 타인을 향한 사려와 분별력, 지식과 행동이 일체를 이루고, 연령과 나이에 맞는 교양과 예의가 있다. 자기중심적이거나

말초적 감각에 휘둘리지 않고, 욕구와 충동을 스스로 억제한다.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미래 세대에 삶의 꽃대가 된다.

영적 리더는 사람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끄는 자, 리더십을 위해 기능적 능력을 발휘하는 자이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도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리더임을 알고 그분이 제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궁극적으로 리더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비전(vision)은 그분께 있고, 친밀하게 동행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성경적 리더십이다.

그럼 순장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사람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듯이, 말씀으로 하나님됨을 이루고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땅의 성공과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자 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둘째, 믿음의 공동체인 순을 돌보고 영적으로 이끌어 가는 리더다. 순장이 영성 없이 순예배를 인도한다면 단순한 인간적인 교제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순장의 영성이 깊어질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순원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런 순예배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생명력이 넘치게 할 것이다. 셋째, 관계 속에서 이기적이지 않고, 순원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사람이다. 순원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서로 맞춰주면서 미성숙한 성도를 이해하고, 감싸주도록 인도해야 한다. 순원이 믿음으로 자라도록 받아주고 용납하며 고난과 고통을 들어주고 기도해야 한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순장은 ‘하나님의 별이 되는 사람’이다. 자기 별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마음에 별이 있는 사람의 삶은 지속성이 있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별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무엇만을 허겁지겁 따라가며 살아간다. 마음에 별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가야 하는 길이 따로 있다. 그 길을 분명히 깨달아 알지는 못할지라도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별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가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빛나는 인생이고, 끝내는 하나님의 별이 되는 사람인데, 바로 그 주인공이 순장이다.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떠도 예쁘고, 눈을 감으면 더 예쁜 사람이 순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꽃을 ‘순장님’이라고 부른다.

새 학기에는 온누리교회 순장 모두가 작은 예수로 살면서 그 중심과 방향성, 책임감과 균형각각을 새롭게 하는 모퉁이돌(cornerstone)이 되기를 바란다.

사역칼럼

작은 실천, 창조세계의 질서 회복



황성주 장로
(서초C공동체)

양재온누리교회 원형 카페로 향하는데 벽면 안내판에 쓰인 글이 눈에 들어왔다. “온누리교회 1년간 사용되는 일회용 컵: 60만 개.”

양재온누리교회 카페에서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작은 일회용 컵 하나가 자연에서 분해되려면 20년 넘게 걸린다고 한다.

60만 개라는 숫자를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매일 1,600개 이상의 종이컵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주일 하루만 따져도 수천 개의 일회용 컵이 쓰레기통으로 향한다. 쓰레기통의 종이컵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자녀인 청년들이 매주 주일 늦은 밤까지 분리수거하고 있다.

최근 SBS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에서 본 장면이 충격적이었다. 생후 1년도 안 된 어린 고래가 플라스틱 컵을 삼킨 채 발견된 것이다. 엄마와 함께 넓은 바다를 헤엄쳐야 할 어린 생명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숨을 거두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온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한다. 특히 임산부와 성장기 어린이들의 환경호르몬 노출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우리 교회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들이다(관련 사진 QR참고). 양재온누리교회 서초C공동체는 올해부터 모

든 모임에서 일회용 컵과 페트병 생수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장로회와 운영위원회, 리더십 수련회, 공동체 개강예배 등에서는 일회용 컵과 페트병 생수가 사라졌다. 순예배를 드릴 때도 순원들은 각자 텀블러를 챙겨오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개인 컵을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양재온누리교회 목사님들과 장애인을 섬기는 양재 사랑부 선생님들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 실천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었는지 물었더니 돌아온 어느 목사님의 대답이 마음에 와닿았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어요. 설거지하는 수고가 조금 더 들지만, 그 작은 불편함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할 만하죠.”

환경 문제는 거창한 구호로 해결되지 않는다. 일상 속 작은 결단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불편함과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무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

온누리교회는 사순절 동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와 함께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을 한다. 다음 주일, 교회로 향하는 가방 속에 작은 텀블러 하나를 넣어보면 어떻게?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연간 60만 개의 일회용 컵을 줄일 수 있다면, 분명 더 나은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예배당 입구의 안내판이 이렇게 바뀌기를 소망한다.

“온누리교회는 성도 여러분의 동참으로 일회용 컵 사용량을 50% 줄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믿는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박영환 선교사
(2000선교본부)

지난해 12월, 귀한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대전온누리교회 남누리공동체 김남식 선교사역자입니다. 2026년 2월 초 P국으로 아웃리치를 오시면서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님들과 교

제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오랫동안 ‘한뎃사역’을 섬기는 박경희 권사님입니다.

한뎃사역이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던 중에 <온누리신문> 1089호에 실린 ‘권사칼럼’을 읽었습니다.

“한뎃사역은 단순히 선교지에 선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선교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 감동을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만난 박경희 권사님 댁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작업공간을 둘러보면서 그 방이 한 뎃 한 뎃 인형을 만들며 예수님을 만나는 작은 골방 같은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손가락 마디는 인형 안에 솜을 촘촘히 채우는 작업으로 인해 휘어있었습니다. 권사님께 한뎃사역에 동참하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은 소수이고,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뎃사역에 참여하는 분들이 인형을 받는 사람들의 사진을 볼 때 성령님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박경희 권사님은 한 뎃 한 뎃 만드신 인형 6박스를 앞에 두고 기도하던 중에 아웃리치를 거의 하지 못했던 P국으로 떠나는 팀과의 만남이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행 16:9)라고 부르신 성령님의 환상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P국 아웃리치팀도 수작업으로 만든 인형을 축매로 한뎃사역과 만나게 된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 믿었습니다.

박경희 권사님은 온누리교회 초창기 이재환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실 때, 아이의 다친 무릎이 굽아 그곳에서 기생충이 자랄 정도로 어려운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뎃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온누리신문> 1089호에 실린 ‘권사칼럼’에는 저의 마음을 움직인 또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밤에 잘 때 인형이 없어질까 봐 고무줄로 몸에 감고 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선교사 자녀들이 우리가 보낸 인형을 통해 치유 받고 위로받는 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

박경희 권사님은 P국으로 떠나는 아웃리치팀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인형을 소유하면 안 되고, 선교사님께 딱 한 개만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P국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대전온누리교회 남누리공동체 김남식 선교사역자님께 이 조건을 전

달했습니다. 답신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였습니다.

함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한뎃사역과 P국 아웃리치팀, 그리고 P국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역할을 내려놓고 협력할 때 이곳 무슬림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귀한 도구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인형을 잃어버릴까 봐 고무줄로 몸에 묶고 잠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의 입가에도 미소가 저절로 번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P국 선교사님들, P국 아웃리치팀, 그리고 한뎃사역자들에게 격려와 중보기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슈끄리아!(감사합니다!)”

서빙고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믿음홀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010-5766-446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장애인 고등&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태주 목사(010-6690-7694)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꿈사랑부 대상: 장애 유아, 초등, 중등학생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김주희 전도사(010-4578-051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 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달 첫주 군포 하나로) / 러시아어예배 11:0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 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 온누리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 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 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 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과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땅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과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땅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 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 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 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과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땅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운유흐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셔틀 운행 시간:매주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재)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	--	---	--	---	--	--	--	---

양재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운유흐(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운유흐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 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30(발달장 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6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운유흐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 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 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	--	--	--	--	--	--	--	--

수원031.895.6500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 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 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 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 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 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 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 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031.515.3521 토요주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름홀(3층) / 꿈땅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 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 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 (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9:0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 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꿈땅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꿈땅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꿈땅3부 13:50 드림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 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	--	--	--	---	--	--	--	---

강동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 스(본당), 운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 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양지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를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를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 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 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064.794.8090 일요주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땅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땅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두드림 수요예배 10:30 본당 엣드림 금요예배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041.665.9686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	--	---	--	---	--	--	--	---

풍경 5주년 특별 기획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힐링보이스

K-POP, K-컬처, 이제는 K-CCM입니다
CCM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에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대상 : 나이 / 성별 / 국적 제한 없음 / 대중 가수 / 찬양 사역자
CCM을 사랑하는 기독교인 누구나 지원 가능

🎤 시상 내역 및 특전

- 최종 우승자(1인) : 상금 3,000만 원
- 최종 TOP7 : 음원 발매, 국내·외 투어 콘서트,
후속 프로그램 출연

🎤 지원 일정 : 3월 15일(일) ~ 4월 30일(목)까지

🎤 문의 : 02-3275-9333, 카카오톡 채널 : CGN 힐링보이스

참가신청 QR

